



사회문제 토론회 1회기

생명존중이란 무엇인가?

생명 존중: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함.

★내가 생각하는 생명 존중은?★

우리 주변 세계 살펴보기 (인화기)

IT > 바이오/과학

[F] "인간의 육식 때문에... 동식물 100만 종 멸종 위기"

세계 50국 과학자 145명 발표

▶인문/과학

발표 2019.05.09 03:08

세계 50국 과학자 145명

과학자들이 지구 상 800만 종(種)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멸종 위기종 대부분이 늘어나는 인구와 환경 파괴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국제 수종의 위기적인 공통 특성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50국 과학자 145명은 지난 6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채택한 1800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가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구 상 모든 생물종의 멸종률은 지난 1000만년 동안 평균 수천 배에서 수백 배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인류의 활동이 동식물 멸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출처: IPBES 보고서)

Samsung
Newsroom

삼성전자
다양한 소
빠르게 민
있습니다

▶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 적어보기 ▶

세계 50국 과학자 145명은 지난 6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채택한 1800페이지 보고서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가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구 상 모든 생물종의 멸종률은 지난 1000만년 동안 평균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멸종 생물 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자원 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을 꼽았다.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동식물이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인류에 의한 자연 파괴와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6의 대멸종(大滅種)'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지구 역사에는 6600만년 전 공룡을 사라지게 한 제5의 대멸종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의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이 아닌 사람에 의해 6번째 대멸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류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곤충이 사라지면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져 전체 생태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왓슨 IPBES 의장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구의 자연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공동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까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문제 토론회 1회기

토론 주제 : 꽃에는 생명이 있어서 존중하여야 한다

찬성 입장

식물에도 생명이 있으므로 존중하는 것이 맞으므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반대 입장

식물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